

오늘부터 코로나 4급 전환, 검사비 유료화

질병청 주간 유행 분석...확진자 일일 집계 오늘 종료 위중증·사망 소폭 증가...일평균 확진자 4만명 아래로 일반인 2만~5만원 내야...고령층은 선별진료소 무료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며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위험도를 32주째 '낮음'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는 31일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확진자 일일 집계는 종료된다. 코로나19 검사비도 유료로 전환돼 건강한 일반인은 2만~5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고령층 등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3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월4주차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위험도는 지난 1월 3주차부터 32주 연속 '낮음'을 유지하고 있다. 방대본은 위중증·사망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치명률이 낮고 신규 확진자 감소세, 병상가동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8월 4주 확진자 수는 26만4305명으로 전주 대비 9.4% 감소했다. 일평균 확진자 수도 4만1693명에서 3만7758명으로 감소해 5주 만에 4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94로 1주 전(0.91)보다는

소폭 올랐으나 2주 연속 1 이하로 나타났다.

일평균 코로나19 사망자는 20~26일 132명이 발생했다. 누적 사망자는 3만5777명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128명(97%)을 차지한다.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235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2주차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0.1%, 치명률은 0.04%다.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7.3%, 위중증 환자 수는 3.5% 증가했다. 60세 이상 사망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36명(28.1%)으로 고령층의 백신 미접종자 비율(3.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파스라이드 등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43.7% 수준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체 코로나19 병상은 668개가 있다. 병상 가동률은 중환자실 41.4%, 준중증 병상 49.1%다.

변이 검출률을 살펴보면 EG.5 변이의 검출률은 27%로 5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XBB.1.9.1은 21.9%로 그 뒤를 이었다. XBB.1.16의 하위 세부계통

인 HF.1(XBB.1.16.13.1)은 8.2%로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가 31일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전수 신고 및 집계는 30일까지 이뤄진다. 앞으로는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단 표본감시 전환 이후에도 정확한 유행 규모 파악을 위해 하수감시와 양성자 감시 등을 병행한다.

검사비는 일부 유료화된다. 그간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에는 진찰비 5000원만 내면 됐지만 31일부터는 건강한 일반인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RAT 2만~5만원, PCR 검사는 6만~8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고령층이나 입원 환자 등은 RAT 1만원, PCR(유전자증폭) 검사비 1만~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사람,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입원 환자 및 간병인 등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떨어질 때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올해 무상으로 지원된다. 코로나19 중환자 입원치료비의 경우 격리입원료를 비롯해 체외막산소요법(ECMO), 인공호흡기 등 고비용 처치비도 연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선욱기자



담양 대전파출소, 찾아가는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 실시
담양경찰서(총경 박송희) 대전파출소는 늘아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을 찾아 사기 수법 홍보 및 예방 활동을 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진도경찰, 외근경찰관 대상 특별사격훈련 실시
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는 지난 29일, 30일 이틀에 걸쳐 경찰서 지하 실내사격장에서 외근경찰관을 대상으로 특별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고흥경찰, 고령자 교통 사고 예방 위한 3심 협약식 개최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3심(조심·관심·협심)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순천 신대파출소, 민경 합동순찰 활동 실시
순천경찰서(서장 김남희) 신대파출소(소장 윤재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동순찰활동을 펼쳤다.
순천=김승호기자



나주경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나주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지난 28일 나주시 빗가람동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사거리에서 민 경 합동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광양소방,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119청춘노인단'구성·운영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의 지형 및 특성을 잘 아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119청춘노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11호 태풍 '하이쿠이' 국내 영향 가능성 ↑ ...“1일째 판가름”

태풍 '하이쿠이', 일본 남동쪽 부근 해상서 북진 중 서북서진하다 4일째 상하이 남동쪽 부근 해상서 북진 한반도 서해안 접근 가능성 ↑ ...“아직 변동성 큰 상황”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중국 상하이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서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상청은 30일 수시 예보 브리핑을 열고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지난 28일 발달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고 있다”며 “9월 4일째 중국 상하이 남동쪽 부근 해상 도달한 뒤 북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로 향할지는 오는 9월 1일에 판가름 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하이쿠이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1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로 북진하고 있다. 이후 9월1일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까지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상하이를 향하던 하이쿠이는 4일

째 상하이 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로 향할 가능성이 있겠다.

다만 태풍 하이쿠이와 함께 9호 태풍 '사울라'와 20호 '열대저압부'도 같이 발달해 있는 상황이라, 상호작용 등의 영향으로 이동경로와 속도의 변동성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9월 1일 오키나와 부근 해상까지 진출하는 것은 예측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다만, 이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태풍의 발달 정도 및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정도, 사울라·열대저압부와 상호작용 등의 영향을 따져봐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부터 9월 1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강수가 이어질 것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

기북부·경기남서부 5mm 내외 ▲경기남동부 5~20mm ▲강원영서남부, 강원영동 5~40mm ▲강원영서중부 5~20mm ▲강원영서북부 5mm 내외 ▲대전·충남남부내륙, 충북 5~40mm ▲세종·충남북부내륙·충남남부서해안 5~20mm ▲충남북부서해안 5mm 내외다. 또 ▲전북내륙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전라서해안 5~40mm ▲광주·전남(서해안 제외) 3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부산·울산·경남 50~150mm(많은 곳 200mm 이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0~150mm ▲제주도 50~150mm(많은 곳 200mm 이상)다.

특히 이날부터 전라권을 시작으로 9월1일 제주도까지 비구름대가 시간당 30~60mm의 강한 비를 뿌리며 점차 남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4일까지 강수 구름대가 남북으로 이동하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예보분석관은 “다만 이 같은 중기 예보 상의 날씨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시스

야간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환영...주말도 없어야”

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최대 50km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탄력적인 제한속도 적용을 환영한다”며 운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 형성됐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km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의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3년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안전이 제일이지만 획일적인 스쿨존 속도규제는 교통 정체를 야기시켰다”, “스쿨존 지날때 속도계 쳐다보느라 전방주시 못해서 사고났던 한 사람도 있다더라”, “진짜 바뀌어야 했다”, “등교 없는 주말, 공휴일도 속도 제한 완화 도입해야 합니다” 등 야간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을 환영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구체적인 시간대가 지역별로 다른 점에 대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헷갈린다. 시간을 외우기 쉽게 통일하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슬비기자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적합'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7년째인 30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전광관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현황이 안내되고 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적합'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7년째인 30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전광관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현황이 안내되고 있다.